



## ‘문화 잡종주의’ 주창한 새로운 시각의 문화교류사

북방문화의 영향 제기한 《실크 로드와 한국 문화》

한국문화와 주변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상관성을 분석한 《실크 로드와 한국 문화》(소나무)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한국학회 소속 연구자 10여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몽골을 비롯해 인도·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교류 역사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국제한국학회 최준식(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회장은 “그동안 너무 우리 문화의 고유성만 강조하거나 우리 전통 문화가 중국 문화 일색이라는 양극단이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 문화 이전에 실크 로드를 중심으로 한 북방 문화의 유입과 영향이 적어도 우리 문화 형성의 초기에는 절대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 책에서 “우리 문화는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형성돼 왔다”는 ‘문화 잡종주의’를 강조한다.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씨름이나 쌀, 고인돌 문화, 강강술래 등이 상당부분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도음악과 한국음악의 비교, 몽골과의 음식문화 교류, 한국

과 중앙아시아의 복식문화, 한·중·일 수저 비교, 중국무용과의 교류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아시아 사이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음악과 한국음악을 비교한 전인평 교수는 인도음악이 아시아 음악의 뿌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교수는 대표적 국악인 ‘영산회상’과 대표적 국악기인 거문고의 원류를 인도에서 찾는다. 부록CD에 실린 인도국악 ‘라가’는 그가 찾아낸 ‘영산회상’의 원류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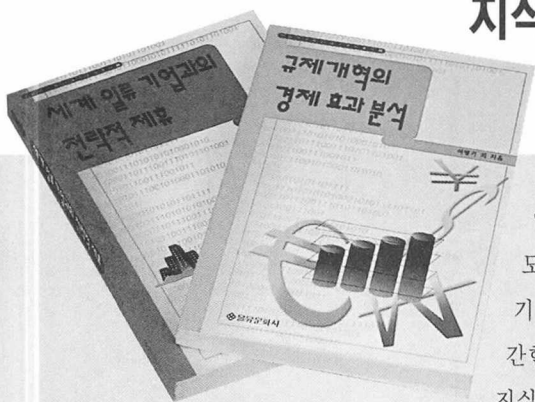
또한 이평태 박사는 몽골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와 한쪽으로 치우친 학자들의 연구 태도를 비판한다. ‘몽골인과 지나치게 동류 의식을 갖는 것’ ‘몽골 연구에서 칭기즈 칸을 너무 강조하는 것’ 등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밖에 ‘유리를 통해 본 고대 한국의 문화 교류’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문화교류’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연구성과로 한번 읽어봄직하다. 60여면에 걸쳐 실린 원색화보도 책을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 김정은 기자

## 지식기반 사회 개념에 바탕한 <21세기 준비총서> 발간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제시



을유문화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한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총서> 시리즈를 발간한다. 이 시리즈는 원래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로, 대정부보고서였다. 이를 출판사가 일반인이 읽기 쉽게 편집해 선보인 것이다.

1차분으로 《세계 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오상봉 외 지음)와 《규제개혁의 경제 효과 분석》(하병기 외 지음) 두권이 나왔다.

《세계 일류...》는 기업 구조개선 수단으로서 전략적 제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국내 주요 12개 산업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잠재적 제휴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제휴의 형태와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전략적

제휴의 사례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인 제휴 방법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폈다.

《규제개혁의...》은 지난 2년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이 진행된 시점에서 규제개혁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조치가 고용, 국민의 편익, 정부의 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통계적 추정을 통해 전력·건설 등 몇 개 산업에서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 선 산업연구원장은 이번 기획총서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산업 정책 방안과 기업 경영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리즈는 매달 두종씩 출간될 예정이며 곧 《과학기술 집적지 발전 방안》《유통 신구조와 물류 혁신》《한국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온다. — 김정은 기자